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성서주일 /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51장** **다같이**

1.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양 보혈을 흘렸네
2.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3.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4.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후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느헤미야 9장 32-38절** **인도자**

설 교 **“이야기로 소통하라”**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이 나라와 민족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사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2. 교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며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 추운 날씨 속에서도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우리의 영혼도 보호해 주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야기로 소통하라

느헤미야 9:32-38

느헤미야 9장은 포로 귀환자들이 7월 27일에 예루살렘에 모여 성회를 열고 언약을 갱신한 내용이다. 그들은 금식하는 가운데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회개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다. 9장 태반의 내용은 레위인 지도자들이 행한 공동 기도문이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이야기 즉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야기가 들어 있다. ▶기도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드린 후에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한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과 개명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 체결,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종살이와 출애굽과 홍해 사건, 광야 이야기 등.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평과 교만과 완악함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배반하고 모독해왔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본질이라고 기도자들은 고백한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9:33). 공동체는 기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하여 이야기를 되풀이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불순종과 심판이라고 해도 말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었다. 창조, 아브라함 선택, 출애굽, 광야 인도, 가나안 수여. 반면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악으로서, 원망, 완악, 교만, 불신, 모독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에게 고난을 받았다. 누구를 탓하라.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기도자들은 당면한 고난과 환난도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뿌리 깊은 죄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9:36). 하지만 이것이 종결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과거 출애굽이 가능했다면 출바벨론도 가능하고, 이스라엘이 예전의 영광과 번성을 회복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렇게 기도자들은 이전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를 엮어서 기도드렸다. ▶이처럼 이야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표준이 되는 거대한 이야기와 우리의 작은 이야기의 만남이 있을 때 제대로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는 순간 나의 인생 이야기는 성경의 일부가 된다. 이야기는 서로를 연결시켜 준다. 그래서 역사를 배운다. 우리는 더 이상 지식이나 정보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정보가 갖는 의미를 알고 싶어 한다. ▶성경에는 모든 이야기의 원형이 들어 있다. 창조의 이야기와 출애굽의 이야기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즉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 성경에 이 이야기들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십자가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두 이야기의 만남을 통하여 내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 두거나 말씀을 들어두면 필요할 때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된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의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 단독의 저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공동 저술하는 것이다. ▶참된 리더는 이야기 리더십을 발휘한다. 지도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지도자가 비전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미지와 이야기다. 감동적인 이야기는 머리와 가슴 모두에 와 닿는다. 지도자는 이야기꾼이다. 비전, 목적, 고난, 가치, 변화, 감동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어야 한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를 들려주되 그 이야기의 출처가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야기할 때 간결하게,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듯, 그리고 감각 기관을 다 동원해서 해야 한다.